



16면  
한국축구, 4년 후 도전은 계속된다

# 전주매일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음 11월 14일) 제31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지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북도와 재경전북도민회, JB미래포럼, 전북애향본부 등이 공동으로 'Now Change, New Jeon-buk'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이 개최된 가운데, 조봉업 행정부지사, 김홍국 허림 회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전북-새만금 미래발전전략 구상

전북도가 전북과 새만금 등의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었다.

도는 6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전경전북도민회, JB미래포럼, 전북애향본부 등이 공동으로 'Now Change, New Jeon-buk'을 주제로 '전북·새만금 혁신 심포지엄(JSIS, Jeonbuk Saemangeum Innovation Symposium)'을 개최했다.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전북의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와 전문가들이 변화와 혁신의 열망을 가지고 전북에 모이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 정운천 국회의원, 김홍국 허림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을 비롯한 재경전북도민회, JB미래포럼, 전북애향본부, 신지식장학회, 세계잼버리조직위,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전북도민, 항우들과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 실현'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모멘텀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위대한 전북과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 모아진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귀담아 들겠다"고 말했다.

### 전북도, 혁신 심포지엄 개최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국가브랜드 전략산업 육성  
잼버리 후 레거시 활용 등  
3개 세션으로 구성·진행

잼버리 100만 서포터즈  
D.Y.D 메타버스 발대식  
심포지엄 특별행사로 열려

정운천 국회의원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축사를 했고, 이어 김홍국 회장은 '동북아를 위한 2개의 창(窓)'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시장의 지리적 중심인 새만금을 동북아의 'Food&Convention Hub'로 조성해 글로벌 자본과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이번 심포지엄 주제인 'Now Change, New Jeon-buk'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지금 변화야, 새로운 전북으로 간다'는 심포지엄의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심포지엄의 본 행사에서는 총 3개 세션별로 좌장 1명, 발제 2~3명이 각 주제에 대해 발표한 후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세션 1은 '새만금 농생명 글로벌 허브 정책 및 컨벤션 인프라 구축 전략'을 주제로 이영미 원광대 교수는 전북과 새만금을 '농생명 글로벌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인택 터치스카이 대표는 세계 정상급 K문화 컨텐츠 산업을 통한 '새만금 국제 컨벤션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세션 2는 전북의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 육성'을 주제로 황태규 우석대 교수는 '전북 대표 브랜드 산업정책의 방향', 이상훈 연세대 교수는 '전북·새만금 혁신 공간 및 생태계 조성방안', 나인호 군산대 교수는 '국가브랜드 전략산업과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산업으로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 세션 3에서는 '지방자치시대 도시·농촌의 상생전략 및 세계잼버리 대회 이후 레거시 활용방안'을 주제로 황지욱 전북대 교수는 '지방자치시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전략', 백승기 (주)승보아엔씨건축사 박사는 '지방자치시대, 도·농의 상생전략, 신유목민 시대, 조정식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본부장은 '제2

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내용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각 발표 후에는 안경구 종자산업진흥센터 박사, 이승인 전북테크노파크 단장 김승지 전북도의회 의원 등 각 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새만금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틀러 특별행사로 신지식장학회 주관 장학금 전달식과 새만금잼버리 100만 서포터즈 D.Y.D 메타버스 발대식이 열려 전북도민과 항우들이 함께 모여 지역 우수 인재 지원과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기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도교육청, 감액 결정**

전북도교육청은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 당초 19만,000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는 9일(예정) 전에 조정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정은성 기자

## 제4차 문화도시 '고창'

국비 최대 100억원 확보  
전북도, 3연속 선정 쾌거



고창군이 문화도시 대상지로 지정돼 국비 최대 100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6일 제4차 문화도시에 고창이 선정돼 지난해 완주(2차), 익산(3차)에 이어 3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16개의 예비도시가 공모에 참여했다. 9월 말 문화도시 조성계획 최종본 자료 제출, 11월 현장·발표 통합평가를 거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고창군을 비롯한 달성군 영월군 울진군영서, 의정부시, 철곡군 등 최종 6곳을 선정했다.

고창군은 2년여간 예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 행정·재정적 추진 기반 확보, 추진 효과와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다 '시민공론장·누구나 수다방', '고창문화자원 나눔공간사업' 등을 통해 사업 대상이나 콘텐츠,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문화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고창군은 제4차 문화도시 선정으로 내년 5년간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최대 10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공모에서 고창군은 지역주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 두 번의 도전 끝에 선정의 기쁨을 안았다.

도는 그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도시 선정 시군에 5년에 걸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도는 앞으로 고창군을 포함한 3개 시군에 지속적으로 지방비를 지원하는 한편 문화도시의 성과가 도내 전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

군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전북도와 시군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4차 문화도시에 고창군이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시군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의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성과확산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우리 고창군의 문화도시 지정에 대해 불철주야 함께 노력해주신 심덕섭 고창군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문화도시 선정으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의 가치 활용을 통해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고창군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소회를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문화공동체를 중심으로 군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문화도시를 직접 실현해 나가는 민간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주민 주체의 사업 기회와 추진 등 주민 중심 공동체 중심의 활력 넘치는 세계 최고의 문화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3년에 걸쳐 예비 문화도시 사업으로 '치유와 힐링' 도시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 왔다. 또 지난해 3월 '고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를 마련하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문화도시지원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김경수 기자·고창=김영식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자연이 주는 휴식~  
Healing의 시작!

# 강수군여행

발길 닿는 곳마다 자연이 주는 넉넉함과 정겨운 미소,  
포근한 인정이 넘치는 장수로 오세요!